

필리핀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과제

-아시아 민주주의 교류사업 필리핀 편

글 · 양금식 yangks@kdemo.or.kr

지난 5월 10일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아들인 자유당 소속 베니그노 노이노 이 아키노 상원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세계 최초의 모자(母子) 대통령이 탄생했다. 신임 아키노 대통령은 6월 30일, 취임식과 함께 에드사(EDSA) 거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베니그노 노이노 S. 아키노 전 상원의원의 동상과 민주주의 기념비 앞에 노란 꽃으로 장식한 화환을 바치며 임기를 시작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정치명문가인 '아키노 가문'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의 당선이 부모의 후광 덕분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아, 앞으로 그가 얼마나 독자적인 리더십을 통해 필리핀의 현안들을 해결해 낼 것인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필리핀 민주주의 과제

필리핀은 아키노 정권(1986~1992) 하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활되어 지금까지 붕괴되는 일 없이 존속해 왔

지만, 의회나 선거, 정당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사회의 제요소는 기대한 만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키노 정권 이후의 필리핀의 주된 과제는 어떻게 이러한 민주주의 제도와 기능의 괴리를 메워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을 실현해 갈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의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가의 '자율성' 확대, 빈곤 해소, 시민사회 성장이라는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 의회를 지배하는 유력 엘리트 가족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상황을 해소하고 '강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국가가 책정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국가의 '힘'의 열쇠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빈곤은 극단적인 이 중구조를 보여 온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였다. 빈곤의 해소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관



EDSA 거리의 아키노 상원의원 동상과 민주기념비 앞의 신임 아키노 대통령 헌화



필리핀 민주주의연구소(IPD) 사무총장 P. Jude Esguerra III과의 대화

[표] 아시아제국의 NGO의 수와 그 밀도

나라	NGO의 수	인구(백만)	NGO/인구(백만)
아프가니스탄	148		
방글라데시	1,200	115.2	10.42
인도	12,000	898.2	13.36
인도네시아	1,000	187.2	5.34
네팔	140	20.8	6.73
필리핀	6,000	64.8	92.59
스리랑카	500	17.9	27.93
타이	200	58.1	3.44

(출처: IGARASHI Seiichi, A Comprehensive Study on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the Philippines—Focusing upon Political Dynamics of Civil Society, 2008)

련되는 문제이며, 단순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것이 민주화 후의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앞의 두 가지 과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민주화라는 체제 변동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이룬 필리핀 시민사회는 지금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을 강화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함을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진하는 행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필리핀 시민단체의 현황과 특징

필리핀 시민단체의 정확한 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재단협회(AF)는 협동조합을 포함해 약 2만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은 그 수를 1만 8천여 개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90년의 시점에서 6만 5천 개의 시민단체가 존재했었다고 하는

데, 이와 같이 숫자가 다른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국과 비교해 보면 필리핀의 시민단체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표는 1998년을 기준으로 한 아시아 각국의 NGO의 수와 그 밀도를 나타낸 것인데, 필리핀의 NGO의 밀도(인구대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키노 정권 이후의 필리핀 시민사회의 특징은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정치적·저항적 자세이다. 마르코스 체제 붕괴과정의 경험에서, 필리핀의 시민사회는 아키노 정권 이후에도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오직이나 부패에 대해 민감하여 종종 강력한 저항세력이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1년 1월에 출현한 '피플 파워 II'이다. 이 시민의 결집은, 부정 헌금에 관여한 에스트



직물노동자 공동체에 대한 PACAP(필리핀-호주 공동체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협력 인증서



쌀박물관에 대한 PACAP(필리핀-호주 공동체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협력 안내판

라다 대통령의 추방을 촉구했다. 여기에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체제의 권력 남용을 체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활발한 공론형성이다. 시민사회는 회의나 세미나, 워크숍 등에서 공유된 연구결과를 확산시켜, 정부의 경제적·정치적 정책을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1991년에 행해진 첫 NGO 전국회의는 그 예이다. 이와 같은 회의를 통해서 필리핀의 시민사회는 국가, 경제, 정치 사회라고 하는 다른 섹터에 대해 사회의 바람직한 비전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정책결정 과정에의 적극적인 참가이다. 시민사회는 농지개혁, 도시빈곤, 환경보전, 범죄 사법 제도, 반 테러리즘, 젠더 등 각 분야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해 정책의 수정이나 변경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시민사회가 정책결정 과정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각 분야에서 정비되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의 발달이다. 1991년 결성된 필리핀 최대의 NGO 네트워크인 ‘개발 NGO 네트워크 회의’(CODE-NGO)를 비롯하여,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87년에 56개의 NGO에 의해 ‘인구, 건강, 복지를 위한 필리핀 NGO 평의회’(PNGOC), 농지개혁 분야에서는 87년에 13개 NGO와 13개의 ‘민중조직’(PO)에 의해서 ‘민중에 의한 농지개혁을 위한 전국회의’(CPAR),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89년에 약 200개의 환경 NGO에 의해서 ‘그린 포럼 필리핀’(GFP)이 각각 결성되고 있다.

다섯째, 시민사회의 제도화이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시민사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사회운동이나 정치 운동은 영속적인 사회구조에 의해서 대부분 바뀌었다. 그러한 운동은 시민사회의 공식적인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보다 일반화되고 있다. 그것은 대중운동을 중시하는 ‘대의 중시 단체’(COG)로부터 NGO나 PO로 시민사회의 주역이 바뀐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필리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리핀의 현재의 정치개혁이 담보상



쌀박물관 체험전시장



직물노동자 공동체 공장 내부

태에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필리핀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많은 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1986년 민주화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또한 영어권 국가라는 특성을 인해 민주화 이후 국제 NGO의 리더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필리핀이 안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그룹은 많지 않았다.

최근 사업회가 실시한 필리핀에 대한 '민주주의 교류단' 파견조사에서도 현지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와 같은 특성이 발견되었다.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해외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지원 단체들은 필리핀의 정치개혁 과제보다는 빈곤 퇴치나 주민의 능력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 개발형 프로그램에 치중하여 왔다. 이 때문에 필리핀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외국의 재정지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에 주로 집중하여 활동하게 되었고, 따라서 자생력이 부족한 상태가 만들어졌다.

필리핀의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단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그것은 내적으로는 자생력을 가진 조직운영에 대한,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기본사항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그리고 해외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빈곤해소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해서 국제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선진제국 및 국제기구들에 의해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하는 다양한 원조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국제사회에 눈을 돌리는 것이 결코 이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는 일도 중요하다. 또한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난 세월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왔던 경제 및 민주주의 원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이다. 그 책임을 다하는 일은 우선 아시아 각국의 현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글 양금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사업국

일본 풀뿌리운동단체 연수 I

⑨ 츠시(津市) 젊은 사고몽치들과의 유쾌한 만남과 그들의 즐거운 삶

글 · 은영준 yjeun@kdemo.or.kr

이 글은 2010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6박 7일 동안 진행된 '일본 풀뿌리운동단체 연수' 참가기 중 첫 번째 글이다. 이 사업은 2010년 (재)5·18재단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이필구 팀장(한국YMCA전국연맹 정책팀), 이호 소장(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조정현 상무이사(팔당생명살림), 은영준 과장(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 등 4명이 참가했고 통역과 안내는 강내영 씨(전 일본 희망제작소)가 맡아 주었다. 일본 츠시의 시민대학인 쟁끼대학, 스즈카 도시공동체운동, 가나가와 지역운동사례 등을 접하면서 많은 활동가와 공무원들과의 만남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이 만남의 내용을 정리해서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옆 동네를 가더라도 처음 가보는 곳일 경우 항상 설레기 마련이다. 이번에는 어떤 멋진 풍경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만날까 등. 국내 여행도 그럴진대 아무리 가까워도 해외인 일본이 아닌가요?

스즈카 도시공동체운동에 대한 호기심에서부터 시작된 이번 학습여행은 스즈카 공동체에서 방한한 활동가들과의 사전 미팅, 참가자끼리의 워크숍, 각종 자료를 통한 사전 학습, 그리고 이메일을 이용한 일정 조율 등을 거쳐 비로소 시작할 수 있었다.

비행기가 일본 나고야 근처 바닷가에 위치한 중부국제공항에 착륙한 후 비행기 트랩을 나서던 우리 일행은 숨이 막힐 듯이 덥고 습한 공기와 마주쳤다.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미리 정보를 입수하여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

미에현 츠시(津市) 쟁끼대학 관계자들과의 즐거운 만남
약 40분 정도의 짧은 바닷길 여행을 마치고 츠시 부둣가에 도착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사람은 마음씨 좋은 우

리 동네 슈퍼가게 아저씨의 인상을 가진 기사였다. 그가 우리 일행을 안내한 곳은 5~6층 정도 되는 평범한 건물 의 한 사무실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건물은 츠시가 소유한 건물로 그 지역 NPO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창립된 NPO지원센터가 건물의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었다.

그 사무실에서 우리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츠시(津市) 쟁끼대학의 관계자들이었고, 이별씨.... 우리를 승용차로 데리고 온 슈퍼가게 아저씨 인상을 가진 분은 쟁끼대학 일을 담당하고 있는 츠시 공무원이었다. 순차통역의 도움으로 진행된 간담회는 3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식사시간을 포함해 약 5시간 정도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쟁끼대학의 역사적·사회적 배경

쟁끼라는 단어는 원기(元氣), 건강함, 활력, 활발함 등의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쟁끼대학의 의미를 풀어보자면 '활기찬 대학', '활력 대학', '활기찬 시민대학'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츠시 쟁끼대학은 츠시의 기본 정책인 '건강한 사람 만들기'와 관련된 쟁끼(활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006년 7월에 시작됐다.



초시의 영웅캐릭터, 초요인자

초시(津市)는 4년 전 10개의 크고 작은 지방자치단체가 통합돼 만들어졌다. 그런 만큼 초시 전체를 하나로 묶어 낼 수 있는 구심점이 없었고 자기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긍지 또한 높지 않았다. 따라서 초시 시장은 4년 전 시장으로 당선된 후 시민들이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시와 함께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먼저 초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초시 문화진흥과 소속으로 갱끼대학 제안자인 하라다 꼬지 씨는 갱끼대학이 초시에서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저는 이 지역 출신으로 평소 지역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딸 셋이 있는데 우리 딸들에게 즐거운 삶의 터전을 물려주고도 싶었고요..... 새로 취임한 시장의 제안이 있기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약 6년 전 지역의 영웅 캐릭터를 만들어 이를 통해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도 있겠다 싶어 20~40대 소수의

젊은 사람들과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초요인자'라는 파워 레인저와 비슷한 지역의 영웅 캐릭터를 만들어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현 시장의 아이디어 공모가 발표됐던 거죠.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했던가? 하라다 꼬지 씨는 즉시 갱끼대학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내용의 핵심은 시 공무원이 내용을 잘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닌, 초시가 깔아놓은 마당에서 시민들이 자기들의 아이디어를 가지고와서 즐겁게 노는 형태였다. 일본의 공무원 문화에서 파격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선진적인' 공무원들이 국가 경제정책을 기업인들에게 '지시'하고 국민들을 '선도'해왔던 그 동안의 관행을 생각하면 이 제안은 내용이 전혀 없는 껍데기뿐인 제안이었음이 분명하다. 이에 대해 하라다 꼬지 씨는,

평상시 이 지역 사람들의 사회 참여도를 살펴봤을 때 50대 이상의 참여도가 높고,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참여도는 상대적으로 아주 낮았습니다. 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가 신나고 재미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을 때 20~40대 스스로가 자신들 특유의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새로운 마음만들기의 싹을 피울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라다 씨는 다양한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중심으로 초시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부담 없이 진행되는 워크숍을 보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이 바로 갯끼대학의 출발점이었고 통합된 초시 마을만들기 사업의 원점이었던 것이다. 하라다 씨의 표현대로 "처음에는 공무원의 스타일로 만들어서 천천히 지역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구조를 만들어 가는", 20~40대의 특성상 하드

웨어 중심이나 보여주기 위주의 사업방식을 철저히 배제한 접근 방법이었다. 하라다 씨는 이에 더해 앞서 언급한 지역 영웅 캐릭터인 '츠요인자'를 만들면서 형성된 20~40대 네트워크 구성원을 갯끼대학 실행위원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추대했다.

직업이 우동집 사장인 이와와키 케이치 씨는 초시갯끼대학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다. 점심 때만 문을 여는 우동집 일이 끝나면 그는 서둘러 갯끼대학 사무실로 와서 사람들과 늦게까지 어울린다. 갯끼대학의 목적을 그의 입을

빌려 표현하자면 '초시의 건강성 회복이고 시민들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다. 이를 만들어가기 위한 사람들이 갯끼대학의 여러 강좌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초시에 살고 활동하는 사람의 활력을 끌어 모아 모두의 활력이 서로 합쳐져 커지는 곳을 꿈꾸며 서로가 격려하고 스스로 즐기는 것이다.

초교자(초시의 만두) 사업

초교자 사업은 갯끼대학의 강좌사업을 통해 실행위원회가 수익까지 창출한 대표적 사업이다. 초교자는 약 15cm 정도 크기의 대형 만두다. 원래는 이 지역에서 학교 급식용으로 공급하던 것이었다. 학교 급식용이다 보니 모양도 조리방법도 일정해야했고 짧은 시간에 만들 수 있어야 했다. 이 만두를 지역 축제가 열릴 때 혹은 나 하는 마음에 거리에서 판매를 시도했다.



내가 어릴 적 먹던 '추억 속의 만두'라는 홍보문구

를 달았다. 첫 해에 400여 개가 팔렸던 것이 둘째 해에는 무려 4,300여 개가 팔렸다. '대박'이었다. 물론 외지에서 구경 온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기 시작한 것은 당연하다.

그 후 30여 개의 요식업체가 초교자 사업에 참여했고 초교자협회까지 만들어졌다. 그러자 원래 학교 급식조리사만이 알고 있던 노하우도 '지식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개되었다. 특이하게도 초교자협회에서는 초교자의 크기만 정했을 뿐 만두속의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는 참여 업체와 통합 초시 이전 10개 지역의 자율에 맡겼다. 실험 정신을 유도한 것이다. 통일한 것은 오직 만두피 한 가지였고 만두피 전문생산업체에 생산을 의뢰했다. 이 결과 요즘 초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약간의 발품만 판다면 수십 가지 초교자의 맛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하라다 씨는 그 동안 많은 실패도 있었고 조용히 사라져버린 활동도 있었지만, 적은 예산과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들 각자가 전형적인 '의욕'을 가지고 유연하고 훌륭한 '발상'을 하며 서로가 협동하여 '힘'을 결집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우리가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갱끼대학 관계자들과의 미팅은 음식점으로까지 이어졌다. 그 지역 스모선수들이 즐겨 찾는 일종의 사브사브 전문점이었다. 우리 연수단 일행은 그곳에서 이미 초시의 명물이 되어 버린 초교자를 맛볼 수 있었다. 그 만두는 고기로 만든 만두 속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아주 맛있었다. 수십 가지 맛을 자랑하는 초교자 중 하나를 맛본 것이다. 음식점 사장은 갱끼대학 강좌에 열심히 참여하며 후원도 자주 하는 후덕한 인상의 아줌마였다. 하라다 씨, 이외와끼 위원장 등과 함께 식사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맡고 있는 일을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다.

사실 한국사회에 일본의 '마을만들기' 사례가 소개되는 과정을 보면 하드웨어 중심의 사업만이 집중적으로 소개된 측면이 강하다.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며 '전시 행정용' 사업으로 이용하는 경향은 한국과 일본의 공직사회 모두에 다 존재한다. 그러나 초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소프트웨어 중

심의 마을만들기 사업도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갱끼대학의 특징과 매력은 공익적인 활동과 지나칠 정도의 행위 놀이와의 경계가 없다는 것, 그리고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즐겁게 참여한다는 것을 철저히 지켰다는 것이다. 더불어 시민과 행정 사이에 쓸데없는 벽을 없애고 적극적으로 유연한 협동을 실현한 것이 큰 힘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들의 활동을 통해 다양하고 유연한 네트워크야말로 새로운 것, 신선한 활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갱끼대학은 그러한 의미에서 새로운 타입의 '네트워크형 마을만들기 커뮤니티'라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정책화시켜 추진할 때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하라다 씨는 이러한 질문에 '갈등은 기본'이라고 말했다. 하라다 씨를 비롯해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한 사람들은 새로운 사람의 가치관과 생각이 기존의 질서에 들어오지 않으면 지역 사회의 변화는 불가능하고 결국 정체된다는 믿음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것이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민원의 소지가 있다'는 말로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는 우리 사회 일부 공무원의 행태가 생각났다. 일본 공무원인 하라다 씨는 우리 연수단을 통해 한국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도 사고 칠 수 있다'고 시종일관 격려했다.

※ 탐방기 전문은 웹진 <희망세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전후 아시아 민주주의의 재조명> 국제학술토론회



기념사업회 연구소와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지난달 15일(수)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전후 아시아 민주주의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 4·19혁명 50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이번 국제학술토론회는 인도, 필리핀, 대만, 일본, 미국 등 해외연구자가 발표하고 국내의 아시아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해 토론했다. 4·19혁명기를 즈음한 1950, 60년대에 한국은 권위주의에서 민주혁명, 다시 쿠데타와 권위주의의 시절을 겪고 있었듯이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역시 식민지배와 전쟁을 벗어나 새로운 민주주의를 모색하고 여러 가지 실험이 이뤄졌던 혼란기였다. 그러나 미소간의 양극화된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의 발전모형을 놓고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저마다 많은 투쟁과 갈등이 있었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볼 때 명암이 엇갈리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이날 1부에서, 천친싱 교수(대만 세신대)는 한국이나 베트남 등과 달리 1960년대에 대만에서 민주세력이나 민중항쟁이 부재했음에도 이후에 유독 성공적인 자본주의적인 경로를 걸었던 이유를 비판적, 복합적으로 제시했고, 네일 산탈란 교수(필리핀 필리핀대)는 독립 이후 마르코스의 등장까지 미국의 '민주주의 전시장'의 역할과

민주적 개혁 추진이라는 이중적인 과제를 추진해야했던 필리핀의 험난한 여정을 소개했다.

2부에서 나가노 토시오 교수(일본 동경외대)는 전후 일본은 평화헌법을 통해 제국주의로부터 탈피했다는 자국민들 사이의 인식과는 달리 자국 내에서 화해를 이뤘을 뿐 아시아 지역에서 이뤄진 전쟁과 식민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 나미히라 츠넨오 교수(일본 유구대)도 같은 맥락에서 오카나와가 전후 일본 문제와 미국의 군사적 목적에 의해 27년간 미국의 점령, 군정을 겪었으며 이러한 모순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에 의해 극복되고 있다고 했다.

3부에서 찰스킴 교수(미국 위스콘신대)는 4월혁명을 진보적인 민중항쟁으로 보는 '4·19(혁명의 전개)' 그 자체보다는 온건보수에서 중도, 진보까지 다양한 색채를 띠고 여러 가지 발전방향을 모색했던 4·19기(5·16 쿠데타 이전의 13개월)에 있었던 논의를 더욱 중시했다. 4·19를 '진보적 민족주의 담론'에 매몰되거나 군사정권의 '관변 민주주의 담론'에 추수되기 보다는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볼 수 있음을 지적했다. 브리지 탕카 교수(인도 델리대)는 인도와 일본을 비교하면서 인도는 시민의 결사체와 사회적 결속이 허약함을 지적하고, 인도 사회의 민주주의는 유럽식의 단일민족국가의 허상을 복제할 것이 아니라 다양성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이번 학술토론회를 주관했던 정근식 교수는 "4월혁명을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바라보고 아시아 각국의 민주주의의 원형이 형성된 여건을 살펴보는 시간이었다"며 "양질의 후속연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진욱·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베를린 자유대학교 학생, 지난 한달간 사업회에서 인턴십 활동



기념사업회 연구소는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연구소와 5개년간 학술교류활동을 하고 있으며 올해가 2년째다. 학술교류활동으로 '시민사회학술토론회'(매년 6월)와 결과물의 사후 출판물, 인적교류로는 베를린자유대생의 인턴십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해 율리아 씨에 이어 올해에도 두명의 후배가 와서 인턴십의 명맥을 이었다. 지난 8월 9일부터 9월 17일까지 약 5주 동안의 인턴십 과정 동안 이들은 사업회 독일어 자료에 대한 감수와 국제 심포지엄 지원 등의 활동을 했다.

• 안네 / 한서현 (Anne-Christin Petzoldt)

“제 이름은 한서현이고 이번 여름 방학 때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좋은 경험을 많이 할 수가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어서 매우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게다가 많이 배울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크리스티네 / 모헤션 (Christine Kossinna)

“저는 크리스티네입니다. 독일에서 온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이학년 한국어를 공부하는 대학생입니다.

여름 방학 때 서울에서 여행하는 중에 6주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인턴십을 했습니다. 인턴십은 재미있었고 유익한 경험입니다. 또 한국사업생활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친절한 동료들을 만나서 정말 고맙습니다!”

세계민주주의의 날 기념사



지난달 1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민주주의의 날이었다. 이 날을 기념해 유엔 민주주의기금 로날드 리치 총재가 사업회에 기념사를 보내왔다. 원문은 사업회 홈페이지 (www.kdemocracy.or.kr)에서 볼 수 있다.

4월혁명 사료총집 중간 보고회 개최



4·19혁명 50주년인 2010년을 맞아 우리 사업회에서 4월혁명 50년 특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4월혁명 사료총집」제작

관련 중간보고회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 한국언론재단 외신기자클럽에서 40여 명의 내빈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중간 보고회 참석자들은 일지, 사진, 자료집 등의 가제본 현황을 보며 현재까지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할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참가자들은 특히 4월혁명과 관련된 방대한 자료를 집대성한 가제본 자료집을 보며, 실무자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